

# 독도도서관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Dokdo Island Collection' in Korea

한종엽,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jyhan@kiost.ac

전미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 miyoung0830@kiost.ac

Jong yup, Han, Ocean Science Librar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Mi-Young, Jeon, Ocean Science Library,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이 연구는 국내 독도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동북아 역사자료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KIOST 해양과학도서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담당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도자료실(코너)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2곳이며, 대부분 1인의 사서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은 비정기적인 기증과 구입에 의존하고 있고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은 부재하였다. 독도자료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료확충을 위한 국가정책 지원, 독도자료 통합포털시스템 구축, 독도유관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 1. 서 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및 해양수산자원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14.6.30)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독도위원회를 격상하여 독도의 이용과 보전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을 통해 독도 및 주변해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지정학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높게 평가되어 왔으며 더불어 독도는

환경생태, 자원, 지질·지형학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 때, 독도에 대한 고지도, 논문, 보고서, 사진 등의 각종자료는 연구의 기초자료이자 우리나라 영토수호를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아직 독도자료에 대한 수집·보존·관리의 구체적인 사례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독도자료의 운영현황을 모색하여 주요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1.2 선행연구

특정주제에 대한 자료실 및 코너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전자료의 개념을 확립하고 고전자료실 확대를 위하여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류준정, 1992)와 대구·경북지역 주요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전자

정보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오동근, 2004)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운영 실태(문성빈, 2009)와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712개관 대상)을 조사(장보성, 2012)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독도자료에 관한 연구로는 90년대 이후 발간된 독도관련 자료집을 선정하여 인용 사료를 분석한 연구(유미립, 2006)가 있으며, 미국 정보국의 CIA 비밀해제 문서에서 나타나는 독도문제 인식에 대한 연구(정병준, 2013)가 있으나 국내의 독도자료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 2. 국내 독도자료 운영현황

이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독도자료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독도 관련 공공 및 대학, 학술기관 중 5개 기관을 선정하여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구성은 운영일반, 인력, 소장 자료 및 이용, 활용 및 홍보 현황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2.1 운영일반

독도자료실 운영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독도자료실 운영현황

구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독도자료실 설치유무	O	X	X	X	O
설치년도	2002년	-	-	2007년	2012년

주) A: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 B: 동북아 역사자료실, C: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D: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E: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과학도서관 (이하 표에서 동일 적용)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은 국내 독도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2002년에 개관한 이래 이용자들에게 종합적인 독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독도 분관을 설치하여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역사자료실과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별도의 독도 전용 자료실(코너)이 존재하지 않고, 독도를 포함한 영토·영해 관련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독도코너를 설치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로 최근 독도서가로 축소되었다. KIOST 해양과학도서관은 2012년에 본원 도서관에 독도자료 코너를 설치한 후 2013년 동해연구소 분원에 독도자료 코너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 2.2 운영인력

<표 2> 운영인력 현황

구분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직원수	1	2	1	1	1
신분	사서	사서	기타	사서	사서
해당직원 배치기간	3개월	-	-	4년	2년

독도자료실 및 코너의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독도자료를 관리하는 인력은 <표 2>와 같이 1인 또는 2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업무연속성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 직원의 배치기간을 살펴보면,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은 3년주기로 업무가 순환되고 있다. 자료의 수서와 구축업무는 별도의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담당직원은 열람 및 참고봉사 업무만 수행한다.

다른 기관에서는 별도의 순환보직 없이 1~2명의 직원이 독도자료 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실의 세부업무 영역으로 분장되어 운영한다.

### 2.3 소장자료

<표3> 소장자료 현황

구분	단행본	정간물	비도서	기타
A기관	7,724책	1,377책	930점	
B기관	536종	3종	188종	3종
C기관	-	-	-	-
D기관	298책	2종	2종	
E기관	436책	2종	18종	

독도관련 자료수집은 정기적인 주기로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진다. 또한 대부분의 소장자료는 기관 방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존상에 문제가 있는 고지도와 고문서 등의 경우 수장고 또는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제한의 대안으로써, 해당자료들은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거나 영인본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은 1908년 이전 고지도 78점 모두를 디지털화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장자료를 양적으로 살펴보면,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의 자료수가 10,361권(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관은 다양한 독도자료의 수집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출장 등 적극적인 수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 역사자료실은 독도자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영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모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 단행본 및 정간물을 타 기관에 기증 및 배포하고 있으며 고지도 183종을 소장하고 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체계적인 장서정책은 부재하지만, 각종 학술 및 연구활동을 통해 독도영유권 관련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 및 제공한다. 그러나 자료가 분산관리되고 있거나, 별도의 보존공간이 부재하여 구체적인 소장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독도자료를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연구자가 연구목적으로 각종 자료를 사업비로 구매한 후 도서관에 이관한다. 도서관 차원에서 독도자료 구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KIOST 해양과학도서관은 독도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모기관에서 생산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구축하고 있다. 독도 관련 신간서적이 발행되면 자체 예산을 통해 구매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각종 고지도, 고문헌 등을 수집하고 있다.

### 2.4 독도자료 활용 및 홍보

독도자료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로 사진전 혹은 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은 비정기적인 사진전시회와 독도 전문가를 초청한 세미나 등을 주관하였다. 또한 타부서와의 협동으로 독도에 관한 일본의 문헌, 문서, 고지도 등을 정리한 팩트북을 발간하고, 국내외 독도 관련 문헌 자료의 목록 및 소장기관을 정리하여 독도 『독도문헌정보총목록』을 발간하였다.

동북아 역사자료실은 모기관에서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을 통해 독도 바다의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독도관련 역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역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는 국내외 독도관련 연구소와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바탕으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연구결과를 각종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독도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국어로 구현된 ‘독도와 동아시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는 독도 관련

보고서와 자료의 서지정보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KIOST 해양과학도서관은 매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관련 단행본, 저널, 시청각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특정 테마별로 독도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산하의 동해연구소, 남해연구소에서 순회전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독도홍보활동은 도서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재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독도의 해양생태에 대한 화보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 2.5 독도자료 운영상의 문제점

독도자료 담당직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독도자료 운영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부족과 독도자료의 희소성에 따른 자료확보의 어려움이다. 독도자료는 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의 수서정책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외자료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독도자료 운영인력의 부족이다. 특히 국내 최대 독도자료 보유기관인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의 경우, 열람업무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자료의 수서업무는 분리되어 있다. 대부분 도서관 공통업무와 독도자료 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셋째, 독도자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간 부족이다.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을 제외한 타기관들은 대부분 별도의 공간배치 없이 서가단위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서나 고지도의 경우 자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 3. 결론

독도자료실의 운영은 장서개발정책과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의 부재, 독도자료 보존 공간 및 시설 부족 등에 기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독도 유관기관간 자료의 공유와 협력이 미약하고, 독도자료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도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독도자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도자료 발굴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독도자료 수집은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이 비정기적인 자료구입이나 기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료의 희소성에도 기인하므로 독도자료 조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현황조사가 필요하며 국내외 독도유관기관에서 소장한 자료의 전수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독도자료 통합포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독도관련 웹페이지는 매우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고 운영 여부 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보를 통합제공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접근점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도관련 고지도, 사진, 영상 자료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독도자료 운영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공유 및 공동활용을 발전시켜야 한다. 독도자료 최다보유기관인 국회도서관 독도자료실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기관, 단체, 대학, 연구소와 자료수집과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공공 및 대학의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체 독도자료 관리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류준정. 1992. 고전자료실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19: 115-143.
- 문성빈, 김관준, 이미경. 2009.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6(1): 321-350.
- 변우열. 2005.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운영현황과 효과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371-414
- 오동근, 김숙찬. 2004. 『대구·경북지역 주요 대학도서관 전자정보실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 21(4): 89-107.
- 유미림. 2006. 독도 자료집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1): 297-330.
- 장보성, 서만덕, 남영준. 2012.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87-107.
- 정병준. 2013. 미국 정보기관의 독도관련 자료와 독도문제 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409-462
- 정재영, 남태우. 2004. 21세기 대학도서관의 주제별 자료실 조직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73-197.